



[농지은행사업 기획보도①] 청년농의 시작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농지은행과 함께!

-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청년농의 영농기반 강화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6/05/19 [23:04: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전지영 지사장(앞줄 좌측 다섯 번째)이 청년농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최근 농촌에서는 청년농 육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의「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지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농지 가격과 시설 투자 부담은 청년농들에게 늘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 준비부터 정착, 규모 확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집중 전개하며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고 있다.

■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 “초기 자본 부담은 낮추고, 영농 기반은 탄탄하게!”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은 청년농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은행의 대표사업 중 하나이다. 비농업인이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청년농 또는 전업농이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청년농, 2030세대, 귀농인 등 사업대상자는 연리 1% 저금리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1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임대차사업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농지를 5년에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에 관심있는 청년농과 현장견학하는 모습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목돈 없어도 OK” 청년농의 든든한 디딤돌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영농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농도 부담 없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대료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므로 청년농의 초기 영농 정착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임대후매도사업 역시 청년농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자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임차하고 임차기간(최장 30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은 임대기간 동안 영농경험을 쌓고 장기간의 분할납부를 통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 초기 자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사업] “스마트농업도 부담 없이 시작!”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사업은 공사가 조성한 스마트팜 시설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농들은 토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영농을 할 수 있어 스마트농업을 꿈꾸는 청년농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 청년들의 농촌 유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젊고 역량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접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높은 농지가격과 초기 자본 부담은 그동안 청년농에게 거대한 진입장벽이었지만, 저금리 대출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 시설 임대 등 농지은행의 단계별 지원제도는 청년농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판은 청년농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 유입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동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농업의 희망을 가꾸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청년농의 영농 단계와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단순한 농지 제공을 넘어 농지확보부터 경영 안정, 스마트농업 확산까지 아우르는 연계 지원 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착을 넘어, 고령화된 농촌의 세대교체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 미래를 설계하고,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농의 땀방울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